



## 이준상

요충은 인류고유의 기생충으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 때부터 함께 살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문제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던가. 아마 다른 기생충에 비해 작고 또 대변검사에서 요충의 충란이 잘 발견되지 않았던 이유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요충은 사람의 큰창자나 맹장에 기생하고 있는 기생충이지만 창자 안에서 충란을 낳지 않고 충체가 항문으로 기어나와 항문주위에다 알을 낳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충이나 편충에서와 같이 충란이 대변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무

리 대변검사를 하더라도 요충란이 잘 발견되지 않는다. 요충검사법으로 “스카치 테이프”법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비로소 요충란을 검출하게 된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대변검사에서 음성이 되었다면 자기는 기생충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생각은 그릇된 생각이다. 설사 대변에서 발견되는 기생충란이라도 한번검사나 대량검사에서는 충란을 발견할 수 없을 때가 있으며 특히 요충은 거의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요충은 크기가 1cm 내외가 되는 실같은 벌레인데 아무리 장내에 많이 기생하여도 우리몸에 직접적으로 해를 주지 않고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충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요충은 어른보다 어린아이들에게 있어

서 감염율이 높은 것이 보통이다.

저자들이 몇년전 서울시내 서민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스카치테이프법에 의한 요충검사를 실시한바 전체 양성율은 23.2%이었는데 14세 이하에서는 40%의 양성율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부모들에서는 12.2%에 지나지 않았으며, 자녀중 한사람이라도 요충에 감염된 세대중 아버지들이 감염된 예는 13.2%이었으나 어머니들이 감염된 예는 아버지들보다 2배 가량 높은 29.3%이었다. 또 한가족중 한자녀가 요충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안의 다른 자녀가 감염될 확율은 54.4%로 나타나 집안에 한사람이 감염되어 있으면 다른 집안식구가 감염되어 있을 확율은 아주 높다고 본다.

어른들은 보통 자기자신은 전연 요충과 관계가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상 어른에게도 요충감염을 자주 보게 되는데 어른은 어린이와 달라 항문주위근육이 단단하여 자각증상이 없어서 이와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어린아이 특히 젖먹이가 밤중 갑자기 울어 아무리 젖을 물려도 좀처럼 울음이 그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때 젖먹이의 항문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요충이 항문주위에 나와서 알을 낳기 위하여 돌아다니는 경우를 가끔 본다.

감각이 예민한 항문주위에 요충이 돌아다니니깐 그것이 몹시 가려움을 느끼는데 애기는 말을 할수 없어 결국 울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같은 젖먹이 요충환자를 오랫동안 치료를 하지않고 놔두면 그젖먹이는 자라서 몹시 신경질적

으로 되거나 성질이 사나워지기도 한다. 그리고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이에 지능과 발육상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젖먹이가 밤중 갑자기 울어 아무리 젖을 물려도 좀처럼 울음이 그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때 젖먹이의 항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충이 항문주위에 나와서 알을 낳기 위하여 돌아다니는 경우를 가끔 본다.

또 국민학교에 다니는 어린이가 이부자리에 오줌을 가끔 싸는 야뇨증이 요충감염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즉 요충이 항문주위에 가려움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방광이나 직장의 괄약근이 자극 받아 수축되는데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결국 과로로 인하여 괄약근이 이완되어 야뇨증을 유발하게되는 것이다. 여자아이들에게는 더욱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요충이 항문주위에 거어다니다가 때로는 여자아이의 성기근처나 질속으로 들어갈 경우가 있다. 이러면 항문주위의 소양증

뿐만 아니라 성기 근처의 소양증때문에 수음의 악습이 생기는 수도 있다. 저학년까지도 학교성적이 좋고 명랑하던 어린이가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고 주의력이 없어지고 정신이 몽해지곤 하는 아이를 보게되는데 이런아이들중 새로이 요충이 감염되지 않았나 검사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요충이 감염되어 항문주위가 가려워 자꾸 긁다가 보면 항문주위에 만성습진이나 농양을 보기도한다.

요충에 감염된 아이들의 손톱을 깎아서 조사하였더니 많은 요충알이 손톱의 때와 함께 발견되었다. 이는 항문주위가 가려워서 긁다가보면 요충알이 손톱속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이런 경우 아이들은 손가락을 입에 넣고 빨때 손톱의 요충알이 입으로 들어가 다시 감염되는 것이다. 이렇게 감염되는 것을 자가감염이라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어린이들은 자가감염이 자꾸 반복되면 수천, 수만마리의 요충이 장내에 기생할 수가 있다.

사실 요충알은 우리들 생활주위 어디에나 널리 퍼져 있다. 요충알은 항문주위에서 떨어지면 이불, 팬티, 잠옷등에 묻었다가 방바닥에 떨어져 먼지와 함께 음식물에 붙어 입속으로 들어오기도 한다.

공중목욕탕의 탈의장이나 옷장속, 마루바닥등에서 많은 요충알을 발견할 수 있고 유치원이나 국민학교 교실바닥에서도 많은 요충알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한가족이나 어떤 집단체 특히

고아원같은 곳의 몇사람에서 요충감염이 있으면 그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요충이 감염될수 있다. 우리가 보통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고 기생충이 전연없다는 미국, 유럽이나 일본에서도 요충감염율은 20-40%라는 사실을 알면 누구나 놀랄 것이다. 이는 그만큼 치료하기도곤란할 뿐 아니라 재감염의 기회가 많기때문이다. 특히 어린이에 있어서는 어른보다 감염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요충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므로 더욱더 자꾸 검사를 받고 치료하여야 된다. 다행스럽게 요충알은 직사광선이나 열에 대하여 약하므로 침구나 속옷을 자주 일광에 쬐이는 동시에 속옷을 자주 갈아 입어야 한다. 또 일상생활에서 식사전에는 반드시 손을 잘 씻어야 하며 치료약을 복용할때는 전가족이나 고아원 전체가 동시에 복용하고 집안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재감염을 방지할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정에서 어린이에게만 요충이 감염되었다면 그 어린이에게만 치료약을 복용시켜 일주일가량은 항문주위에 나타나지 않다가 다시 나타나므로 요충약의 약효를 의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재감염의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어린이의 형제는 물론이고 부모까지도 동시에 요충약을 복용하면 오랫동안 항문주위에서 요충을 볼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어린이의 손톱을 자주 깎아주어 손톱 때속의 요충알이 식사할때나 손빠는 습관에 의한 버릇으로 인하여 입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필자=고려의대기생충학교실·의박)